

탁월한 고전 산문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다른독해

플이비급

완벽정리

1. 다른 독해

-**BONE 독해**: 작품의 서사를 파악 즉 사건과 그 사건의 시간에 대해 정리

-**POINT독해**: 작품의 세부 정보를 파악

1)BONE 독해법

-작품의 서사를 파악

-**작품들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연속과 그 사건들간의 인과 관계 즉 플롯을 파악**

-**'인물, 사건, 배경'(쉽게 가기)** 에 동그라미 치기

-**'인사배'**를 통한 사건 정리(핵심) 한정성에 대한 고민(고전만의 특성)

CF)서사란 (출처: 서사학 강의 H. Porter Abbott)

서사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구조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간단하게 보자면 서사란 사건의 재현 혹은 사건의 연속을 의미한다. **단지 사건들이 아니라 이 사건들의 연속과 재현이 서사의 핵심이다. 사건들의 흐름을** 살필 수 있어야 올바른 서사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의 흐름과 사건이 서술되는 순서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역순행적 서술 즉 입체적 서술의 경우이다. 이런 서사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되는 순서에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사건의 원인을 강조 하고자 과거의 사건을 이후에 서술하는 서사들이 많은 현대 서사문학을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흐름뿐 아니라 인과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FOR 현대서사 고전에는 약간의 변화 필요

탁월한 고전 산문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CF) 고전의 한정성

'고전문학은 기본적으로 서정이든 서사이든 제한적인 형태를 보인다.

'사건의 연속되는 구조나 그 구조에서 인물이 보이는 반응'과 '시적 대상과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화자가 보이는 정서' 모두 현대 문학에 비해 제한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고전 서사 문학은 현대 서사 문학에 비해 역순행적 서술처럼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직선적으로 서술되지 않는 경우가 적다. 즉 서사의 구조가 현대 소설에 비해 단순하고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사건들의 연속에서 인과 관계에 집중한 독해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전 서사 문학에서 서사 구조는 주로 연인의 사랑과 그러한 사랑을 방해하는 집안과 전쟁과 같은 외적 요소, 비범한 충신과 이를 방해하는 간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장수와 이 장수의 국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타국 장수, 하늘 나라에서 죄를 지어 지상세계로 적강 하였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적강선인 등으로 한정된다.

EX)조선시대

-전기소설

남녀의 사랑과 좌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 활용, 한시를 적극적 활용, 사회적 환란이나 부모의 반대가 많음

-영웅 소설

영웅의 일대기(고귀한 혈통-비범 능력-고난-조력자-위기-극복과 성공)의 구조, '사명당전' 처럼 양반 이후에는 영웅이 외침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통해 민족 자긍심 회복, 전기적 요소 많음

-환몽소설

꿈속을 배경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다시 현실로 되돌아옴. 꿈에 들어가는 입몽과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각몽의 등장, 꿈을 통해 인생의 무상감등을 깨닫는 경우 많음, 적강 구조와 같이 나오는 경우 있음

-역사 군담 소설

전쟁터가 주된 이야기, 전쟁터의 무용담을 주로 서술, 능력을 묘사할 때 작가개입과 전기적 요소가 많이 사용됨

-가문 소설

가문간 갈등, 가문 내 구성원간의 애정문제를 건드림, 서사가 오랜 기간 걸쳐 진행

탁월한 고전 산문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판소리계 소설

확장적 문체. 반복과 과장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 작가개입이 매우 빈번

'결국 이 구조를 관통하는 것은 이분법적 구조와 이분법적 구조에서의 맺힘이 풀려가는 과정이다.

'고전 서사의 한정성은 모두 이분법적 구조로 설명된다. 연인들의 사랑과 이를 방해하는 악인.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승과 저승 그리고 이별과 재회라는 관계까지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서사가 진행된다. 이는 영웅서사나 군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충신과 이와 반대되는 악인. 악인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해결한 뒤 행복을 쟁취하는 선인을 통해서도 이분법적 인물, 사건 배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적강구조와 환몽구조도 이분법적 구조와 이로 인한 서사의 한정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 적강 구조에서는 주로 하늘나라의 선인이 죄를 얻어 속세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쳐 다시 하늘나라로 회귀하게 된다. 행복했던 하늘나라와 이 행복을 박탈당하고 다시 찾아가는 과정인 속세의 이야기. 이 구조에 존재하는 선인과 일반적인 사람 역시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한 제한적 서사이다. 환몽구조도 현실 세계에서 입몽을 통해 현실세계와 대조적 관계에 있는 꿈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역시 적강 구조처럼 다시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구조를 가지는 데 중요한 것은 이 서사의 한정성 역시 꿈과 현실세계라는 이분법적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고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전의 기본적인 서사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고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사 정리 도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라는 기준점을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물

주로 선인과 악인의 구조를 보인다

열녀, 충신, 효자, 영웅, 선인의 조력자, 유교적 가치

VS

간신, 타국 장수, 악인의 조력자, 반 유교적 가치

탁월한 고전 산문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사건'

사건의 핵심은 이분법적 구조에서 맺혀있던 사건들이 점차 풀려나간다는 것

결국에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

적당 구조처럼 인물은 대조적인 배경에서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 불행을 겪고 있다거나
영웅 서사처럼 인물은 대조적인 속성 때문에 고통 받다가 고통을 극복하고 성공을 쟁취
한다

이 사랑과 이별, 고통과 성공 같은 불행과 행복이라는 대조적인 사건(장면)들은 주로 해
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CF) 회기 구조(불만한 개념)

고전이 보이는 사건과 해결 구조 중 주목할 부분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원상태로 돌아
온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상과 하늘, 지상과 수중, 이승과 저승, 현실세계와 꿈의 경우가 있다.
이 4가지 경우 모두 대조적인 배경 하에서 배경을 변화해가면서 서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인물은 서사 구조의 마지막에서 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한다.

'배경'

배경 역시 이분법적인 속성을 보임

자연, 이승, 지상, 현실

VS

속세, 저승, 천상 혹은 수중, 꿈

'실제 적용'

기본적 서사구조에 대한 고민은 암기

MAIN플이는 인물 대상 배경에 동그라미&꿈어주기= 장면별 독해

시험장에서는 인물의 경우에만 이 이분법적 구조를 추구하기

탁월한 고전 산문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2)BONE 독해 개념 적용

하루는 **박소저가(인물)** 시부모께 문안하고 절한 뒤에 엮드려서 **이판서(인물)**에게 아뢰었다.

"내일 아침에 노복을 종로 여각에 보내어. 거기서 매매되는 수십 필의 말 중에서 제일 못한 비루먹은 말의 값을 물으면 일곱 냥을 달라고 할 것이니 못 들은 체하고 삼백 냥을 주고 사오라 하십시오."

"아니 네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 곡절은 후일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판서는 자부의 비범한 재주를 믿기 때문에 **응낙하였다(사건)//(머릿속 정리. 응낙했군)**

① **노복(인물)**이 일곱 냥에 정해 놓고 말 거간꾼과 **남은 돈을 나누어 먹기로 하고 비루 먹은 말을 끌고 돌아왔다.(사건)//**

박소저가 한참 보다가 말했다.

"저 말을 도로 갖다 주라고 하십시오."

"네 말대로 삼백 냥을 주고 사온 말인데 왜 다시 되하라는 거냐"

"이 말은 삼백 냥 가치의 말인데 그 값을 덜 주고 사왔으니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② **이판서가 놀라서 노복을 죽이니 노복이 빌면서 사죄하고 다시 말 여각으로 가서 삼백 냥을 다 주고 말을 끌고 돌아왔다(사건).** 박소저는 이판서에게 말 기르는 법을 아뢰었다.

"이 말은 하루에 깨 한 되와 백미 오홑씩 죽으로 쑤어서 3년 동안 먹이되. 이 초당 뜰에 풀어 놓고 밤에도 찬이슬을 맞게 하십시오. 그러면 3년 후에 깡하게 쓸 일이 있습니다."//

박소저 계획대로 후원에서 **3년 동안 놓아 먹였다 하루는(배경)** 박소저가 이판서에게 여쭙었다.

"내일 명나라척사가 남대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믿을 만한 노자에게 분부하여 우리 말을 끌고 가서 기다렸다가 척사가 값을 물거든 삼만 팔천 냥에 팔아 오라 하십시오."

과연 **병나라 척사 장수는(인물)** 말을 삼만 팔천 냥에 사갔다. 이 말은 천리마였던 것이다.//

'인물 사건 배경에 동그라미 쳐 BONE 파악& 끊었으면 2초이내 사건 정리

한정성을 고민해 주기

탁월한 고전 산문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서성수 국어

교대 오르비 학원